

# “희망과 절망 사이...의사 사명감 전하고파”

### ●에세이집 ‘메스를 손에 든 자’ 출간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크론병 앓으면서 치료하고 가르치는 숙명적 감성 15년간 외과의사가 느낀 고통·기쁨 진솔히 담아

“크론병을 앓으면서 크론병에 대해 가르치고 치료하는 어떤 숙명적인 감정들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의 고뇌와 진심이 담겨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이수영(39) 교수가 수술실 안과 밖의 이야기를 풀어 쓴 ‘메스를 손에 든 자(푸른향기)’를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장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자 크론병을 앓는 환자이기도 한 이 교수는 책을 통해 15년 동안 만난 수많은 환자와의 소중한 시간과 대학병원 외과 의사의 치열한 일상을 전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수술실에서 살려낸 환자들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환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외과 의사의 고뇌와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이 교수의 에세이집은 ‘Part 1. 외과의사 이야기’와 ‘Part 2. 환자 이야기’로 나뉜다.

‘Part 1’은 크론병을 앓고 있는 자신이 크론병을 치료하고, 크론병에 대해 가르치는 대장항문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과정과 ‘의사와 환자’의 간극,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와 현실 사이’ 등의 주제를 통해 모두가 기피하는 외과 의사의 고독과 기쁨,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Part 2’에서는 부모 앞에서 앞날이 창창한 어린 아이들에게 내리는 시한부 선고, 대장암 말기 환자의 배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배를 닫아야 하는 상황 등의 가혹한 현실과 환자로부터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에 대한 솔직한 심정도 고백했다.

이수영 교수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이수영(왼쪽)과 이 교수가 출간한 ‘메스를 손에 든 자(푸른향기)’ 표지 사진.



자를 보고 있노라면, 신을 향해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환자로부터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의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 때문에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 메스를 잡는다”며 “한 번이라도 병원 생활을 해본 환자와 보호자, 외과 의사의 일상과 속내가 궁금한 독자, 진로를 고민하는 의대 지망생과 의대 재학생, 대학병원 수련의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부교수로서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대장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한미수필문학상 우수상과 장려상,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은상 및 동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EBS×브런치 ‘나도 작가다’ 공모전을 비롯해 월라×브런치 브런치북 오디오북 출판 프로젝트 등에도 당선됐다. 현재 브런치에서 ‘Zero’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다.

/오복기자



## 광주매일신문, 온누리아동센터 ‘미디어 순회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 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12일 광주 북구 온누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쉽게 따라하는 신문 만들기’ 교재를 통해 어떤 사안이 뉴스가 되는지와 뉴스로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또 글을 잘 쓰는 방법, 기사의 특성에 대한 이론교

육이 실시됐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여원(본춘초 5)·유중원(양지초 5)·박하윤(본춘초 3)·김리운(본춘초 3) 학생은 교재 속 예제 기사를 육하원칙으로 분석해 보면서 신문 만들기 과정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표,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 동강대 졸업 송현규씨 “글로벌 셰프 위해 싱가포르 취업”

“해외 취업을 통해 세계의 다채로운 요리와 문화를 배워 한국에서 퓨전 중식 요리전문식당 오너 셰프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올해 동강대학교 외식조리제빵과를 졸업한 송현규(22)씨는 지난달 8일 싱가포르의 J&J FOOD PTE.LTD에 취업했다.

J&J FOOD PTE.LTD는 싱가포르 법인회사로 11년째 한국식당을 운영 중이며, 현재 한국식 중식당으로 영업하고 있다. 오픈 주방에서 중식 화구에 조리한 요리를 선보이는 등의 차별화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입사 한 달이 된 신입 셰프 송씨는 “평소 좋아하는 중식 요리를 좀 더 차별화되고 특색 있게 만들어보고 싶어 해외 취업을 희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씨는 학과에서 전공 실력뿐 아니라 해외 취업에 필수인 외국어 능력도 꼼꼼하게 준비하며 글로벌 셰프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봉선 외식조리제빵과 학과장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요리 실력만큼이나 외국어 능력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교류원과 연계해 글로벌 전문 조리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등 해외 취업 도전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미기자

## 담양 봉산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담양군 봉산면은 “최근 봉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관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정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빨래와 LED 전등 교체 등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기동대 대원과 면사무소 최혜령 복지팀장 등 직원 20여명이 주거 취약가구를 방문해 빨래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이후 혹은 고장 난 전등은 LED 전등으로 교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마을의 어려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생활 불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봉사해 준 복지기동대 대원들에게 감사



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복지기동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 박남식 광양제철 공정품질부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박남식 광양제철소 공정품질부소장이 국내 철강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3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회 철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철의 날은 산업통상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현대식 용광로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쇠물이 흐른 1973년 6월9일을 철의 날로 지정하고 2000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박남식 광양제철소 공정품질부소장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이영춘 광양제철소 후판부장과 조대인 광양제철소 도금부 과장이 각각 철강기술상과 철강기능상을 수상했다.

박남식 광양제철소 부소장은 지난해 9월 포항제철소가 냉철 범람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 전수 방

문조사를 진행하고 광양제철소 전환 생산체제를 신속히 구축해 생산과 마케팅의 협업을 주도, 고객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철강 수급 안정화에 앞장섰다.

박남식 광양제철소 공정품질부소장은 “지난 냉철 범람 이후 일궈낸 135일의 기적은 임직원 모두가 포스코 정신을 살려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적을 이뤄낸 지금 광양제철소가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신(新)모빌리티와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가스틸, 고망간강, Hyper NO와 같은 기술 선도 제품들을 앞세우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을 신속하게 확산하는 등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 영광교육청-경북도교육청, 교육 교류 연수

영광교육지원청과 경북도교육청지원청은 “최근 영광중앙글로벌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영호남 교육 교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군위교육지원청 직원 30여 명이 영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두 지역의 특색 교육에 대한 공유와 상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활발하게 논의했다.

특히 영광SW교육체험센터를 방문해 영광지역 SW교육과 AI교육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 안내, 성과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광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늘 교류

는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두 지역청의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됐다”며 “이번 교육 교류가 다가올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하고 상상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란 경북도교육청지원청 교육장은 “영광과 군위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과 행복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영광교육지원청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SW·AI교육을 보며 군위청 역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광교육지원청의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김재식 동구의원 ‘화재 피해...’ 조례안 발의



김재식 광주 동구의회 의원은 “제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동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 피해를 입고도 다양한 이유로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수는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 증명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집에 불이 나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최수태 송원대 총장 ‘마약퇴치 캠페인’ 동참

송원대학교는 13일 “최수태 총장이 대학본부에서 전상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학생들은 앙팔로 X자를 취하며 마약 퇴치를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퇴출’에 대한 국민 의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연말까지 릴레이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최 총장은 캠페인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로 서법석 남부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최수태 총장은 “최근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온 마약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크고 작은 피해의 위험성이 걱정된다”며 “특히 마약 범죄는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마약 퇴치를 위해 동참하자”고 말했다.

/김다미기자



## 광주전남방무청, 31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

광주전남지방방무청은 13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을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입영문화제에서는 가족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쓰기, 군보급품 전시, 스마트 사격체험, 캐리커처, 청춘 사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영 대상자와 가족·친구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겼다.

방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축하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입영문화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 부음

▲김말희씨 별세, 정승균(광주매일신문 지역특집부(담양)국장)씨 모친상=발인 14일(수) 오전 7시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장공실(062-250-4450).

▲손정남씨 별세, 손일갑(광주매일신문 지역특집부(동목포) 부국장대우)씨 부친상=발인 15일(목) 오전 9시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1호(062-951-1004).

▲최정희씨 별세, 강형규(전남도청 대변인실)씨 모친상=발인 14일(수) 오전 8시 광주 성요한병원 장례식장 1층 1호방(062-510-3005).